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천문석 교수



2008년 2월 27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는 지난 학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들의 고별 연설이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자리에 선 천문석 교수는 느닷없이 임용계약서 이야기부터 꺼낸다.

“연구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임용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을 잘 지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이 자리에 서니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천문석 교수는 1979년 4월에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서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29년 만인 이 날 정년퇴임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날로부터 보름 쯤 지난 어느 날, 정년퇴임 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천문석 교수를 만났다. 교직원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연구실로 옮겨서 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강의도 계속하고, 그밖에 하던 일들도 조금씩 계속하고 있지요. 그동안 다니던 헬스장이 그만 부도가 나서 운동은 못하고 있어요.”

1979년 4월, 당시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는 천문학 담당하고 있던 주광희, 나일성 교수와 기상학을 담당하던 조희구 교수가 계셨다고 한다. 특히, 주광희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주광희 교수님은 프랑스 유학 중이셨어요. 그런데 1979년 후반에 귀국을 하셨지요. 80년 1월인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월급 받으면 모두 학과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품도 온화하셔서 학

생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사정 이야기도 들어주시곤 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주광희 교수와의 인연에 대해서 더 물었다.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새로 생긴 천문기상학과에서 조교를 맡게 되면서 천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물리학과에 계시던 이철주 교수님이 추천을 하셔서, 천문기상학과에 가서 주광희 교수님과 조경철 교수님을 도와서 조교를 하게 되었지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인지 천문기상학과 1, 2회 졸업생들과는 아주 친합니다. 지금도 왕래를 하지요.”

조경철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했다.

“학교 안에 있는 논지방에서 숙식을 하셨어요. 원래는 여학생 휴게실인데... 어쨌든 그곳을 사택 삼아 한 2년 계셨어요. 너무 바쁘셔서 강의를 대신 하기도 했지요. 참, 그 때 벌써 조경철 교수님은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주광희 교수님도 차가 있었지요. 자가용이 아주 드물던 시절에 두 분 다 차를 몰고 다니셨지요. 멋쟁이셨습니다.”

천문석 교수는 조교 생활을 하면서 국립천문대 건립을 위한 관측에도 참여하게 된다.

“1960년대에 북한은 이미 국제천문연맹에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런 북한 천문학 관련 일들을 묶어서 우리도 국립천문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부각되었지요. 천문대 건립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망덕산과 여주에 있는 양자산에서 천문대 건립을 위한 시험 관측이 시작되

었습니다. 이 때 저도 관측 요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천문석 교수 외에 오병렬, 박성환, 그리고 나중에 심경진, 이런 분들이 관측 요원으로 합류를 했다.

“그러다가 저개발국가의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콜롬보 계획의 일환으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1970년 10월말에 호주에 도착했어요. 시기는 좀 달랐지만, 이시우 교수님과 이영범 교수님이 함께 호주로 갔습니다. 전 북대에 계시던 이영범 선생님은 곧 돌아왔지요.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곳에서 지도교수인 켈 프리만 교수를 만났다.

“제 일생에서 몇 번의 큰 기회와 행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프리만 교수를 만난 것이었어요. 나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의 식견과 학식에 존경을 표합니다. 당시 프리만 교수의 관심사가 구상성단 분야여서 자연스럽게 구상성단의 측광과 분광 관측을 많이 하게 되었지요. 학위 논문도 그렇고요.”

학위를 마친 후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국 옥스퍼드로 떠났다.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 호주와 남아공에 가서 구상성단과 나선은하의 분광 관측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나선은하의 HII 영역 관측을 막 시작한 파젤 박사, 에드먼드 박사와 공동 작업을 많이 했지요. 이 때 결과들은 외부은하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관측하고 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남아공 관측을 다녔던 1977년과 78년 관측 여행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한다.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지요. 차표 사는 곳, 출입구, 해수욕장, 모든 곳이죠.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영국과 남아공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를 갖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 거주하는 천문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Honorable White’ 지위라고 합니다. 참, 그런 무지막지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역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홍승수 교수와는 북해를 건너서 왕래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홍 교수가 아이들 안고 짐 끄꿍대며 끝면서 옥스퍼드로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가곤 했어요.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로 건너가기도 했지요. 조교 시절 한 야간 고등학교 수학 선생으로 같이 일하기도 했어요. 둘 다 유학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참여했을 때네요. 자주 만나고 한국천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어요.”

옥스퍼드 생활이 끝나갈 무렵, 천문석 교수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로에서 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캐나다에 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안세희 교수님

께서 편지를 하셔서 귀국을 권유하셨어요. 여러 번 생각한 끝에 연세대학교로 오게 되었지요. 사실 먼저 귀국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홍승수 교수님의 경우가 제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귀국 초기에는 자주 만나서 술도 같이 하고 천문학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자주 부부동반으로 만나고 있다고 한다.

“귀국해서 연구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했지만, 자부심도 있어요. 학생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유학을 권장했어요. 천문학은 그야말로 글로벌한 학문이고 경쟁은 국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원 없이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요. 덕분에 많은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한 학생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테마를 정하고 연구를 수행했어요. 저는 그저 조언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쉬움도 이어진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펼쳐나가도록 뒷받침 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천문학이 학내외에서의 인정을 받고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즐거웠습니다. 한국 천문학계의 위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높아졌고요. 홍승수 교수님이나 저 같은 2세대 천문학자들이 조금은 여기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세대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당부의 말이 이어진다.

“이젠 천문학의 사회적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이야말로 학문적 성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후학들이 잘해 와서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습니다만 더욱 정진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앞에 나서서 명예와 실리를 챙기기보다는 늘 뒤에서 후학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셨던 천문석 교수님의 당부도 역시 그런 소망의 테두리인 것 같다.

여전히 두꺼운 강의 노트를 들고 수업에 들어가는 천문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마치면서, 부도난 헬스클럽이 빨리 다시 문을 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